

3월 3일 (출애굽기 12장 21-28절)

재목: 첫 유월절

열 번째 재앙 / 구원의 은혜

요약: 어린양의 피로 열 번째 재앙. 죽음을 면하는 구원의 은혜와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유월절을 통해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의 자손이 이방나라를 400년 동안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벌하셔서 나올 것이라 하신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이루십니다.(창15:13-16)

요셉을 선두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사백년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립니다. 계속해서 생육하고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왕은 그들에게 고된 일을 시켜 노예로 삼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하며 이스라엘의 힘을 약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고된 노역 속에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하시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길 거절했고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와 그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유월절은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고 애굽 땅에만 내렸던 파리, 우박, 메뚜기, 흑암 등의 재앙과는 달리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과 고센 땅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행해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센 땅에 있더라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고 애굽 땅에 있더라도 말씀대로 행한다면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은 집의 가족이나 사람의 처음 난 모든 것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달을 첫 달로 삼고 10일에 일 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하고 14일에 그것을 문지방에서 잡아 피를 받아 두어 우슬초 묶음에 그 피를 묻혀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 밤에는 잡은 고기를 모두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며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만약 남아 있다면 모두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금방이라도 곧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여 매년 절기로 지키되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첫 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지킬 것과 추가로 여러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이야기 흐름에 갑자기 후대 자손들에게 해당하는 무교절의 규례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월절은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을 면하기 위한 일회성의 사건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를 지킬 때 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후세대에게 전해지고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낫선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명의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애굽의 세력 아래 노예 살이를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고 독립적인 민족으로서 출발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했을 것이고 애굽에서 발을 떼기도 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날 이자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어린양이 되신 날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건지신 이 날을 대대로 기억하고 구원의 감사를 기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정체성이 새로이 세워지는 시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3월10일 (출애굽기 20장 1-17절)

제목: 십계명

언약의 시작 / 백성의 정체성

요약: 하나님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 세번째 달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 위로 부르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이시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말씀하시며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언약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부터 하나님은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건지셨고 부르셨습니다. 언약은 그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택하신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 준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고 이어 두번째 계명으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만을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절대적이심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보이신 것처럼 다른 우상과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른 신과 함께 섬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섬겨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노역 임무가 주어지면 어떠한 선택의 여지 없이 동가나 목적이 없어도 수동적으로 매일 매일 완수해야만 했습니다. 여태껏 수동적인 삶을 살아온 백성에게 선택의 기회는 물론 쉽다 주어지지 않았지만 종의 신분에서 건짐받아 자유와 쉬이 주어진 것입니다. 쉬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일을 내려 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스스로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해오던 일을 온전히 멈추고 내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의 위치와 주어진 삶의 목적을 점검함으로 방향을 재정비하는 날입니다. 이렇듯 안식일은 종과 자유인의 뚜렷한 구분점이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어서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눈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이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으로 요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을 믿고 구원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택함 받은 백성다운 삶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고 점검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 보다 내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3월 17일 (출애굽기 24장 1-11절)

제목: 하나님이 주신 언약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 언약과 그리스도

요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전체가 체결의식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후에 백성들이 언약을 불이행할 것을 아심에도 은혜를 베푸실 것을 걱정하시고 백성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으로 시작된 시내산 언약 내용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24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동의와 언약 체결의 실제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올라오라고 하시고 그 후에는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서 언약 체결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세는 인간이지만 오실 그리스도의 상징을 맡은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백성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백성의 답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언약 체결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열 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 두 기둥을 세웁니다. 제단과 기둥은 25 장에 나오는 성막에서 사용되는데 성막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을 의미했습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 명의 장로는 멀리서나마 하나님의 임재의 일부를 보며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고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깨끗함을 보았지만 이를 보지 못한 그 외에 많은 백성에게 제단과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의식이 체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단과 기둥을 세운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에게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제물에서 나온 피의 반은 제단에 뿌렸고 나머지는 따로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백성 앞에서 낭독하여 듣게 하고 백성들이 준행할 것을 동의한 후에 남은 절반의 피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피를 뿌림으로 그 피가 언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피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이 피는 언약을 불이행할 시 죽음을 의미하며 이 약속이 죽음으로 체결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 명의 장로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멀리서 뵈고 먹고 마시며 교제했습니다.

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판을 받으려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십계명 조차도 지키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이 때 하나님도 백성의 불성실함으로 이 언약이 지키지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 밖에 없는 백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놓으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로 희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먹고 마실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3월 24일 (출애굽기 34장 1-9절)

제목: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 / 은혜로 세워진 언약

요약: 시내산에서 주신 첫번째 언약이 체결되자마자 백성들의 죄로 깨지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여지와 모세의 중보는 두번째 새로운 돌판이 기록되게 했습니다. 백성은 두번째 언약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은 이들이 멸절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한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더 없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의 동의에 언약 체결 의식을 진행하였고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필요한 재료와 설계도에 대해 듣는 40일 동안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가 떠나 있는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대신 세워놓은 아론을 찾아가입니다.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출32:1)”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다른 신을 만들라는 백성들의 요구에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에 대한 무시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에서 도우신 모든 구원을 부인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약 체결 직후에 십계명의 첫번째 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하신 말씀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하신 두번째 계명을 깨뜨리는 죄였습니다.

모세의 부재 속에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백성들의 요구에 모세의 대리자인 아론도 쉽게 굴복해 버립니다. 아론은 곧 바로 백성들에게 금 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하며 금으로 조각하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를 가리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송아지를 여호와로 삼고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 새로운 신 송아지의 날로 선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백성들이 송아지상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놀았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먹고 마시는 교제는 이 전에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식에서 행해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황금 송아지와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언약의 첫 번째 돌판을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의 만행을 보고 크게 노하여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부수어 가루고 만들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며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한 아론을 책망합니다.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어긴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해 중보자로 세워진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모세는 엄청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분노에서 건져내기 위해 힘을 다합니다. 큰 진노 속에도 여전히 용서의 여지를 두신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간절한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은 멸절의 위기를 면하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처음 주신 돌판을 대신할 새로운 두번째 돌판을 준비하도록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돌판을 준비하여 산에 오른 모세 앞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의 첫 언약은 체결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파괴되어 버렸지만 두번째 언약은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합하여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목이 뻗뻗한 백성이며 또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은혜언약임을 보여줍니다.